

『200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제 14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2일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총리직무대행(경제부총리),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세계 물의 날』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차원의 기념식 개최하고 있다.

금년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문화(Water and Culture)’이며, 정부는 이번 기념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맑은 물 보전 및 수자원 확보 등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부 문정호 국장에게 홍조 근정훈장이 수여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통령 표창(단

체포창)이 수여되는 등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등 19명에 대해 정부 포상이 있었다. 한편,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히 지난 3월 한달간을 세계 물의 날 행사기간으로 정하여 각종 학술회의 개최, 홍보활동 및 이벤트 등을 통하여 일상 생활에서 물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수도 운영관리 효율화’ 등에 관한 심포지움, ‘물과 삶의 질’에 관한 심포지움, ‘지속가능한 물환경 유지·보호를 위한 수질평가방법’에 관한 세미나 등 학술세미나, 심포지움 등 15회 개최하고, 일반 국민이 물의 소중함에 대한 홍보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터넷 홍보실시, 인터넷 배너광고(환경부: 네이버, 건교부: 다음, 엠파스, 인터넷 YTN), 선전탑, 육교현판, 리플렛, 물관련 자료집, 영상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물의 소중함을 홍보, 생활 주변의 물 관련 시설인 댐, 하천, 저수조, 배수지, 약수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활동 추진된다. ◀

지속가능한 물환경 유지·보호를 위한 수질평가방법

환 정부는 BOD 등 유기물질 관리 위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하여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떠들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2006~2015)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또한 BOD나 COD로 대표되는 수질환경기준을 국민건강과 생태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 등 다양화되고 있는 오염물질 변화에 대응하고,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환경 유지·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

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3월 23일 과학원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물환경 유지·보호를 위한 수질평가방법’이란 주제로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1부에서는 미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되는 물환경 평가방법과 전망 등이 소개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마리 라일리(Mary Reiley) 팀장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물환경의 이화학 및 생물학적 건강성(Biological Integrity)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특히 생물학적 건강성평가가 가장 좋

은 수질평가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물환경의 물리·화학적 균형이 파괴되면 생물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물리·화학적 수질기준(Physical and Chemical Criteria)을 설정하고, 복원 및 개선을 위해 생물학적 수질기준(Biological Criteria)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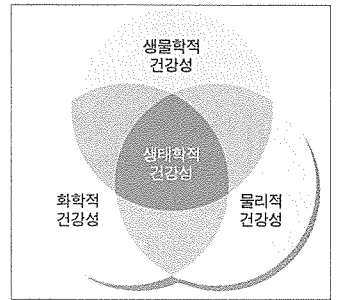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수질기준을 이용한 미국의 수질관리 프로그램도 소개하였다.

두번째 연사인 독일 바바리안주 환경청에 근무하셨던 스테펜 뮐러(Steffen Mueller) 박사는 하천에서의 유기 오염물질이 용존산소의 변화를 초래하여 생물의 종 다양성을 비롯한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독일에서는 일찍이 저서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연방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7개 등급과 색상으로 구분, 수질지도를 작성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수질관리 정책결정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2000년 12월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물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2015년까지 생태적으로 좋은 물환경 유지(Good Ecological Status)라는 목표하에 생태학적 평가체계(Ecological Assessment System)를 도입하고자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생태학적 평가체계 : 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인자(대형 저서생물(하루살이, 다슬기 등), 식물성 플랑크톤, 대형 수생식물(갈대, 줄 등) 및 저서식물(부착조류), 어류), 일반 화학적 수질(수온, 용존 산소량, 영양상태 등) 수형태학적요소(수문특성, 강의 연속성 등) 및 생물 서식지 평가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



세미나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의 발전방향과 물환경 평가 연구동향 등이 소개되었다.

물환경 평가의 잣대인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체계 개선, 사람의 건강항목 확대, 생물지수를 이용한 생물학적 수질평가와 생태학적 등급체계 도입 등 향후 발전방향을 우선 소개하고 국내에서 개발되어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 중인 생물학적(어류, 저서생물, 부착조류) 수질평가방법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화화적인 평가방법과 생물학적 수질평가 방법을 접목한 수질종합평가지표 개발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본 세미나에서 제안되고 소개된 생물학적인 평가방법과 생태적인 등급체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다듬어 정책화 할 경우, 우리의 물환경이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이며 또한 예산투입 등에도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숨은 청소년 환경보전 공로자 발굴’

- ‘제1회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5명 수상

한 강유역환경청(청장 : 손희만)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을 실천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스스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제1회 환경사랑 청소년 환

경상」 시상식을 지난 3월 22일 양평군 양수리 환경생태 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환경 분야 탐구, 환경보전 실천·활동 2개 부문에 응모한 9팀의 후보자 중에서 서류심사,

현지실사, 본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5명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수상하였다.

『제1회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수상자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등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06. 2. 16)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이재원(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과 성화반(선정고등학교)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임소연(인일여자고등학교), 동그라미 생태탐사(능안초등학교), 환경탐사반(성문고등학교)이 선정돼 각각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우수상은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및 5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 수상자의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재원 학생(민족사관고등학교)은 2편의 탐구논문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예측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우수하고 창의적인 지구환경과학 탐구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제환경단체인 'Roots & Shoots'의 한국청소년 지부를 조직하는 등 국제 연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환경동아리 '성화반'(서울 선정고등학교)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환경 축제, 캠페인, 캠프, 탐방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전교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 전교생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

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생 단체로 우수상을 수상한 '동그라미 생태탐사'(경기도 파주 능안초등학교)는 임진강 등에 대한 하천 생태탐사활동을 전개하여, 보고서를 홈페이지와 환경신문에 게재, 학생 및 관내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초등학생의 활동으로 매우 우수하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임소연 학생(인천 인일여고)은 인천의 굴포천 등에 대한 하천 생태조사 및 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난 5년간 꾸준한 활동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성문고등학교 환경탐사반은 안양천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주민과 관련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 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본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1회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수상자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회 운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본심사에서 학생이 자신의 탐구·활동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06. 2. 16 심사장 전경〉